

이지케어텍,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EDGE&NEXT' 상용화 시작

- ▶ 완전한 클라우드 형태로 헤민병원에 국내 최초 도입, 안정화까지 마쳐
- ▶ 환자 안전 및 업무 편의성 높이고 도입 비용은 낮춰... 중소·2차 병원으로 시장 확대 교두보 마련

<2020-06-25> 헬스케어IT 전문기업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은 서울 동북부 최고의 지역의료기관인 헤민병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엣지앤넥스트(EDGE&NEXT)'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상용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엣지앤넥스트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국내 첫 완전한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으로 그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패키지형 시스템이다. 이지케어텍은 지난 3년간 약 250억원을 투자해 엣지앤넥스트를 개발했고, 대형 대학병원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던 기존의 베스트케어 외에 중소병원 및 2차 병원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엣지앤넥스트는 이지케어텍의 지난 20년간의 의료 전문 노하우와 IT신기술을 접목해 환자 안전, 업무 편의성 및 효율적인 병원 경영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구축 기간은 3~4개월 수준으로, 구축형 솔루션에 비해 75%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브라우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도입 시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며, 병원 규모별 모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 병원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임상핵심관리, 진료비 및 수익관리, 병원 운영 관리가 필수 모듈로 제공되며, 임상 지원 관리, 의사결정지원 관리 등이 옵션 형태로 제공된다.

이지케어텍은 여기에 개발 단계에서 CSA STAR, ISO27017 등 보안 관련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으며, 중앙에서 단일 소스를 서비스함으로써 최신 운영환경의 상시 구현 및 의료 고시사항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NBP)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는 NBP 외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예정되어 있다.

헤민병원 김병관 원장은 "엣지앤넥스트는 기존의 구축형 HIS보다 확장성 부분에 탁월한 장점을 보이고 있어 빠르게 변하는 의료시장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이지케어텍의 풍부한 대형병원 HIS 구축 경험이 중소병원의 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하며, "앞으로 헤민병원이 서울 동북부 최고의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먼저 긴 시간 시스템의 개발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특히 당사의 시스템을 선정하고 성공적인 1호 오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헤민병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향후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고,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버전도 개발하여 해외 영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미 일부 동남아 및 일본 등의 시장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고 밝히며 국내외 시장확대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지케어텍은 엣지앤넥스트 오픈 기념 클라우드 HIS 월 사용료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로모션에 관한 내용은 엣지앤넥스트 홈페이지(www.edgenext.com)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엣지앤넥스트는 오는 8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K-Hospital Fair 2020에 전시되어 병원 관계자 및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